

김영록 전남지사, 군공항 정면 돌파... “광주시장과 먼저 만날 수도”

“도민과의 대화 무안 개최 시 군공항 질의·답변 피하지 않을 것” 국립의과대 유치 관련 “목포대·순천대 통합신청안 의견 많아”

김영록 전남지사가 중동 방문을 하루 앞두고 28일 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군공항 이전 문제 협의를 위해 3주간(광주시·전남도·무안군) 대화에 무안군수가 응하지 않으면 시·도지사부터 먼저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여수 유치 협의 등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12월6일까지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두바이와 사우디를 방문한다.

김 지사는 오늘 광주 군공항 무안이전 반대 범국민대책위가 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내달 13일로 예정된 ‘무안군 도민과의 대화’ 개최 반대에 이어 ‘김산 무안군수의 군공항 3차 협의체 참여’ 거부를 촉구한 데 대해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대책위가 군공항 이전 반대를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전남도는 22개 시·군 도민들에게 도청 보고회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도민들 또한 보고 받을 권리가 있

기에 내달 13일 무안서 도민과의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의사를 분명히 전했다.

그러면서 “당일 도민과의 대화에서 무안군민들이 도지사를 향해 ‘광주 군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결코 답변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최근 강기정 광주시장의 ‘광주 군공항·민간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을 묶는 통합 시대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크게 환영했다.

그러면서 “무안군수가 (무안 통합시와 같은) 이러한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빨리 응하지 않으면 시·도지사부터 먼저 만나서 논의하겠다”며 도 기획조정실장에게 중동 순방 이후 광주시장과 빨리 만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것을 지시했다.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문제는 전남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누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는 광주와

전남을 넘어 전북까지 고려해야 할 국토 서남권 발전이 걸린 과제라는 점에서 전남과 광주, 광주와 전남이 합심해서 함께 반드시 빠르게 이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광주시의 협력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김 지사는 전남 주요 현안인 국립의과대학교 유치와 관련해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분리해서 신청하면 불리하다는 의견이 많다”는 전문가 의견을 인용하면서 양 대학이 통합 신청하는 방안을 희망했다.

그러면서 “목포대와 순천대가 전남권 외대 유치를 위해 열심히 뛰는데 많은 분들 의견은 공동으로 의대를 설립하는 길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이 많았다”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의과대학 설립 신청 방식은 양 대학에서 결정하겠지만 도민들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출범한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최근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수 요조사에 의과대학이 없어서 의견을 낼 수 없었던 점을 크게 안타까워하면서 “다시 또 제로(0)에서 또 제로(0)로 갈 수는 없다”며 전남권 의대 설립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내년 1월에 발표 예정인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8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전남 국립의과대학교 유치와 군공항 무안이전 추진 현안 등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총원 확정안 발표 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6~2027학년도에 정원 규모 100명의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계획이 반드시 포함 되도록'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강기정·홍준표 시장, 달빛철도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국회·여·야 양당 공동명의 건의서 전달 고속화 일반철도로 재정부담 ↓ 효율화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27일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했다.

양 시장 공동명의로 된 이번 건의서는 헌정 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여·야 협치의 상징법안이자 영호남 상생과 균형발전의 대표법안으로 달빛철도특별법을 반드시 연내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그간 제기된 과도한 재정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속철도를 고수하지 않고, 고속철도에 준하는 기능을 하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고속화 일반철도로 건설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선로 운영의 효율성과 열차 안전성을 위해 복선화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건의서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당초안보다 사업예산이 2조6000억 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 특별법 제정에 걸림돌이 되던 국가 재정부담 우려가 해소된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운행 시간은 고속철도와 큰 차이가 없어 비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용 대비 효과가 크며, 향후 2038 하계아시아게임 개최 등에 따른 수요 증가에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시장은 “달빛철도는 1999년부터 논의된 동서화합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261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해 공동발의한 만큼 매우 절실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총선용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데 총선이 다가오면 민심이 최대치로 증폭되기 때문에 오히려 총선을 앞두고 나오는 정책은 민심이 반영된 절실하고 옳은 정책”이라며 “철도망 백년대계 구축을 위한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이 끝까지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면기자

광주 광산구, 겨울철 제설·취약계층 보호 종합대책 마련

내년 3월 15일까지 자연재난 대비 기간

광주 광산구는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기간으로 지정, 제설 작업 준비와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광산구는 과거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 분석을 통해 제설 대응 체계 점검에 나선다. 폭설로 인한 교통 정체와 고립을 막고 보행로와 이면도로 등 보행자 통행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기용한다.

또 강설과 같은 기상특보가 내리질 경우

신속하게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할 계획이다. 시민안전과 건설과를 중심으로 제설대비 상황반을 편성, 운영한다.

기상특보 예보 즉시 제설장비와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고 교차로와 같은 취약지를 중심으로 제설제 살포 등 사전 조치에 나선다.

이면도로와 보행자도로에 대한 제설 대책도 강화한다. 소형염화칼슘 살포기 13대, 다목적 소형 제설 차량 6대 등을 투입해 시민 밀착형 제설 대책을 추진한다.

또 내 집·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을 홍보하고 시민 참여를 독려한다.

아울러 폭설·한파로부터 취약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취약계층별 맞춤형 돌봄서비스, 동절기 난방비 지원, 건강 고위험군 집중관리 등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병규 청장은 “예년보다 기후 예측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전 부서가 협업해 다소 과하다 할 정도로 대비할 것”이라며 “내 집 앞과 내 점포 눈 치우기 동참, 가족과 이웃 안부 챙기기 등에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임형택기자

광주교사노조, 희망교실 복원 촉구... “교사들이 자비들여 유지”

“담임교사가 어려운 학생 몰래 지원...생활용품·문화예술품”

광주교사노조총합은 28일 “담임교사가 어려운 학생을 몰래 도와주는 프로그램 ‘희망교실’이 폐지돼 교사들이 자비를 들여 유지하고 있다”며 “복원과 함께 24억원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광주교사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

주형 복지프로그램인 ‘희망교실’이 없어져 학생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희망교실은 지난 2013년도에 처음 실시된 이후 지난해까지 유지된 광주형 교육 복지프로그램이다”며 “담임교사가 여건이 어

려운 학생을 찾아내 의료 등 생활용품 지원, 스포츠·문화행사 동행 관람 등을 하며 학생의 정서 안정, 자존감 향상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 “희망교실은 광주지역 교사 절반정도가 참여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았으며 일부 담임교사는 사업을 중단할 경우 학생들의 상처가 우려돼 자비를 들여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용일기자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조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합니다.				
1.발전설비용량 : 1.4MW 2.사업개시예정일 : 2023. 11 3.사업운영기간 : 2023. 11 ~ 2048. 10(예정) 4.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2023. 11. 21. ~ 2023. 11. 30.까지 전남 목포시 미항로 191-4 (2층) 일양산업으로 인적사항과 의견을 기재하셔서 우편으로 송부하시거나, E-mail : ilyang00@daum.net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발전소명	6. 신청인	7. 용량(kW)	8. 발전소 위치 및 면적	
1. 교산1호 태양광발전소	㈜에스비텍	99.56	(1,065㎡/14,533㎡)	
2. 교산2호 태양광발전소	㈜에스비텍	99.56	(822㎡/14,533㎡)	
3. 교산3호 태양광발전소	㈜에스비텍	99.56	(814㎡/14,533㎡)	
4. 교산4호 태양광발전소	서양수	99.56	(822㎡/14,533㎡)	
5. 교산5호 태양광발전소	김장봉	99.56	(895㎡/14,533㎡)	
6. 교산6호 태양광발전소	신원창	99.56	(821㎡/14,533㎡)	
7. 교산7호 태양광발전소	양종철	99.56	(831㎡/14,533㎡)	
8. 교산8호 태양광발전소	김수	99.56	(944㎡/14,533㎡)	
9. 교산9호 태양광발전소	(유)지원통신	99.56	(895㎡/14,533㎡)	
10. 교산10호 태양광발전소	정연주	99.56	(890㎡/14,533㎡)	
11. 교산11호 태양광발전소	김선평	99.56	(1,196㎡/14,533㎡)	
발전소명	신청인	용량(kW)	발전소 위치 및 면적	
1. 나주왕곡14호 태양광발전소	㈜일양엔지니어링	142.79	전남 나주시 왕곡면 신원리 743-19, 743-12 724-3, 산99-2 (1,686㎡/22,006㎡)	
발전소명	신청인	용량(kW)	발전소 위치 및 면적	
1. 부덕27호 태양광발전소	㈜일양엔지니어링	99.56	전남 나주시 부곡동85 85-2, 85-1, 산92-1 (5,134㎡/28,638㎡)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조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합니다.

1.발전설비용량 : 1.2MW
2.사업개시예정일 : 2023. 11
3.사업운영기간 : 2023. 11 ~ 2048. 10(예정)
4.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2023. 11. 21. ~ 2023. 11. 30.까지 전남 목포시 미항로 191-4 (2층) 일양산업으로 인적사항과 의견을 기재하셔서 우편으로 송부하시거나, E-mail : ilyang00@daum.net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발전소명	6. 신청인	7. 용량(kW)	8. 발전소 위치 및 면적
1. 행전1호 태양광발전소	김준필	99.56	전남 나주시 왕곡면 행전리 38, 39, 40-1, 41, 42-1 (5필지)
2. 행전2호 태양광발전소	고성필	99.56	
3. 행전3호 태양광발전소	문인구	99.56	
4. 행전4호 태양광발전소	황효순	99.56	
5. 행전5호 태양광발전소	김영수	99.56	
6. 행전6호 태양광발전소	이성훈	99.56	
7. 행전7호 태양광발전소	박명자	99.56	
8. 행전8호 태양광발전소	박종섭	99.56	
9. 행전9호 태양광발전소	배영희	99.56	
10. 행전10호 태양광발전소	박병하	99.56	
11. 행전11호 태양광발전소	정성용	99.56	
12. 행전12호 태양광발전소	김윤호	99.56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유연 근무 시도에 어긋나지 않게 퇴근 시간을 엄수하여 행복시간을 준수하십시오.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